

# 전남교육청, 2021학년도 개학 '초·중·고 85% 등교수업'

### '새학년 집중준비기간' 통해 교육과정 · 방역 철저 준비

### 장석웅 교육감 현장 점검 "방역 · 학습권 모두 지키겠다"

전남 도내 각급 학교가 2일 정상적으로 2021학년도 학사입정을 시작했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은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개학연기 없이 3월부터 정상적으로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되며, 초·중·고 85%가 등교수업을 한다고 2일 밝혔다. 초등학교의 경우 429교 중 364교(84.8%), 중학교는 249교 중 211교(84.7%), 고등학교는 144교는 123교(85.4%)에서 등교수업을 한다.

이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거리두기 단계별 등교수업 원칙에 따른 것이다. 유치원과 초·1~2학년은 2단계까지 밀집도 적용기준에서 제외돼 매일 등교한다.

전남의 경우 현재 1.5단계로 특수학교, 소규모학교, 농산어촌학교가 매일 등교하며 대입을 앞둔 고3 학생들도 매일 등교 가능하나 학교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2월 초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방안' 안내를 통해 학교 밀집도 및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등교수업 일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학교별로 노력해 줄 것을 권고했다. 개학 연기 없는 예측 가능한 학사 운영,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기 없이 예년과 같은 11월 셋째 주(11월 18일)에 치를 계획도 함께 안내했다.

특히,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 등교수업 확대에 따른 학습격차 해소 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2월 새학년 집중준비 기간을 운영, 방역과 교육계획 수립 등을 마쳤다. 이 기간 각 학교 교직원들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학습결손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학교별 맞춤형 대책을 세웠다.

특히,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개별맞춤형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 연수, 원격수업 기기대여 준비, 학교

안 전문직학습공동체 구성 등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새학기 교육활동을 철저히 준비했다.

도교육청은 새학기 개학 후 예상되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꼼꼼하게 세웠다. 각급 학교에 방역인력 1,573명(719교)을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신속 대응하도록 했으며, 보건용마스크 등 방역물품도 구입해 학교 현장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다중시설 이용을 자제하도록 학생생활을 지도를 강화하고,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 자가진단, 발열체크 등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전체 학교에 대한 방역소독도 완료했다.

이밖에 밀집도 완화, 시설방역 등 기숙사 운영 학교에 대한 방역대책도 꼼꼼하게 세워 추진했다. 도내 150명 이상 기숙사 운영학교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 문제점을 보완했고, 55개 전국 단위 모집학교 기숙사 입소생 모두에게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해 음성판정을 받은 학생들만 입소하도록 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개학 첫날인 2일 오전 광양 지역 학교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점검한 뒤 도내에 나신 학생들을 반갑게 맞이했



다. 장 교육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내는 것"이라며 "교육공동체 뿐 아니라 지역사회 모두가 방역수칙을 준수해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학습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1년간의 경험을 거울삼아 밀집도 및 학사운영의 내실화를 확보하고 등교수업 확대를 통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배움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교육가족 모두의 열정과 사랑이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김정환기자



## 무안교육청, 학교 방역 현장점검 실시

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란)은 신학기 개학을 맞아 2일 학교 방역사항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필수요원을 제외한 무안교육지원청 전 직원이 관내 30여개의 초·중·고등학교를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에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의 기본 생활방역수칙 준수 사항을 살폈다.

학생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등교하였으며, 각급학교의 담당교사가 등교하는 학생들을 차례로 발열 여부를 체크하였다.

무안교육지원청은 2월 17일부터 10일간 전문업체를 통해 모든 학교의 방역 소독을 완료하였으며, 개학기 대비 학생 1인당 3매의 방역용 마스크를 총 3만여 매 지원하는 등 신학기를 대비하여 코로나19 대응 방역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김란 교육장은 "등교 개학이 일제히 이루어짐에 따라 각급학교에 방역수칙 준수 홍보와 철저한 예방 및 준비로 모든 교육활동이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안=이기성기자

## '전남농산어촌 유학프로그램' 인기...왜 순천인가?

### 서울 초·중학생들, 6개월 이상 농산어촌 학교 다니면서 생활

순천으로 서울 학생들이 전학 온다. 서울 초·중학생들은 6개월 이상 농산어촌 학교에 다니면서 생활해보는 전남 농산어촌 유학프로그램이 최근 유학생 환영식을 시작으로 3월 신학기부터 출발한다.

2021 전남농산어촌 유학생 환영식은 허석 순천시장과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 서울 유학생과 학부모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을 통해 전남

도 내 학교로 전학을 오는 서울유학생은 모두 83명(초등생 66명·중학생 17명)이다. 그 중 순천은 총 26명으로 유학생들에게 가장 인기가 좋다.

학생과 가족이 이주해 생활하는 가족제류형이 18명, 학생이 지역 농가에서 생활하는 홈스테이형이 8명이며, 낙안초(17명), 월동초(7명), 순천월전중(2명)으로 전학하고 유학생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순천 유학생이 가장 많은 데에는 가족들이 주말에 순천으로 내려와 함께 생활하기에 편



리한 교통과 주변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무엇보다도 생태와 함께 숨쉬고 살 수 있는 청정 자연이 공존하는 교육 환경과 마을교육공동체 등 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하고 흥미로운 순천의 교육프로그램이 매력적이기 때문이라는 평이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 나주교육청, 학교폭력 온라인지원시스템 정착 위한 연수

### 학교폭력업무 교사들의 실질적 행정업무 경감효과 기대

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길)은 지난 2월 25일 나주교육센터에서 관내 53개 학교 학생부장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지원시스템 이해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도교육청이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행정 업무를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도입한

'온라인지원시스템(공감마당)'을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학교현장에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실시됐다.

나주교육지원청은 이번 연수에서 학생부장들이 온라인지원시스템 활용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손쉽게 활용하도록 별도의 사용설명서를 만들어 배부하였으며, 학교장 자체해결·심의 위원회 개최 요청 등 전담기구 심의 단계별로

유형을 나누어 각자 실습을 진행하며 시스템 활용 이해도를 높였다.

이번에 도입되는 '온라인지원시스템'은 학교폭력 사안발생 시 사안 내용을 일일이 작성하여 문서를 생산하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관련 학생 정보와 사안 내용을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공문서가 생산되고, 시스템 상단에 제시된 메뉴 순서대로 따라하면 절차상 하자를 보완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어 선생님들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동취재본부

